

【교황 방한 환영 메시지】

가난하고 소외된 이들에게 위로와 힘을 주는 교황님의 한국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평화의 메시지와 기도가 한반도는 물론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의 많은 이들에게 힘이 되고 실현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한국사회는 다종교 사회입니다. 서로의 종교를 이웃종교라고 부르며, 대화와 협력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불교는 한국 천주교 발상 초기 시절 천주교인과 아픔을 함께한 역사를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한국사회의 종교간 대화와 평화를 위한 노력은 세계평화를 위한 실천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다시 한 번 프란시스코 교황님의 한국방문이 건강과 행복 속에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이 되기를 기원합니다.